

7/17/16

설교 제목: 믿음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된 라합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여호수아 2:1-21

- (수 2:1)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잇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 (수 2:2)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의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절관주** 시 127:1
- (수 2:3)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 (수 2:4)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절관주** 삼하 17:19
- (수 2:5)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 (수 2:6)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여 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 (수 2:7)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 (수 2:8)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 (수 2:9)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절관주** 수 9:9
- (수 2:10)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절관주** 출 15:14
- (수 2:11)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니라
- (수 2:12)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절관주** 수 2:18
- (수 2:13)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 (수 2:14)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절관주** 사 1:24
- (수 2:15)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절관주** 행 9:25
- (수 2:16)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절관주** 약 2:25
- (수 2:17)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절관주** 창 24:8
- (수 2:18)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절관주** 수 2:12, 수 6:23
- (수 2:19)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절관주** 민 35:26, 민 35:27
- (수 2:20)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 (수 2:21)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스라엘이나 우리 나라나 족보에는 남자들의 이름만 기록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특이하게도 다섯 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살몬의 아내였던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이 다섯 명의 여인들이 세상에서 특출나게 높은 지위나 부를 거머졌던 여인들이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이들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여인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한 여인도 있습니다.

몸을 팔아 먹고 산 여인도 있습니다.

이방 여인도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죽인 사람의 아내로 산 여인도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낮고 험난한 삶을 산 여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천하다고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몸을 빌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족보에 여자 이름을 올리지 않는 관습을 깨고 이 여인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런 여인들을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셨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삶이 우리네들의 지지고 북으며 사는 삶과 대동소이 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각자 지나온 삶을 책으로 쓰라고 한다면 몇 권씩은 거뜬히 써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들도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낮고 험난한 삶을 산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도 파란만장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여인들 중 기생 라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 족보에 나온 기생이라고 하니까 혹시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며 남자들과 품격있는 교제를 나누었던 조선시대 기생 황진이를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기생은 포르네(prone) 곧 창녀를 지칭합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여리고 성을 침략하려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공략하기 전 싯딤에 머물면서 먼저 두 정탐꾼을 성에 보냅니다.

여리고 성에 들어간 정탐꾼들은 성벽 위에 자리잡고 있던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못 남자들이 들락거리는 기생 집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도 쉽고 정보도 얻기에 안성맞춤의 장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 왔다는 정보는 당장 여리고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렇잖아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은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공략해 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긴장하며 경계를 해 오던 터에 이런 정보가 들어오자 여리고 왕은 당장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끌어 내라고 명령합니다.

라합은 이미 정탐꾼들을 지붕에 벌여 놓은 삼대 속에 숨겨 놓고서는 그들을 찾으러 온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이 오긴 왔었는데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성문을 닫을 때 쯤 그들은 나갔노라고 말하면서 급히 쫓아가면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연막까지 칩니다.

집안 수색을 피하기 위한 기가 막힌 설레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행동을 하는 라합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리고는 자신의 조국입니다.

우리나라 기생 논개처럼 적장을 유도하여 끌어 안고 같이 물에 빠져 죽음으로써 조국을 구하지는 못할 망정 자신의 조국을 이렇게 배신하다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라합 자신과 가족들도 이 일로 인해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였을까요?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그 이유를 밝힙니다.

(수 2:8)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수 2:9)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수 2:10)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수 2:11)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1. 자신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첫 관문인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되는 것을 기정 사실로 받아 들인다는 것입니다.
2. 여리고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 내릴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 광야에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이 붙었을 때 등등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는지 이미 소문으로 다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3.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위에 진짜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여리고 백성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라합과 라합을 제외한 여리고 백성들과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라합을 제외한 여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공격해 와 자신들과 나라가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며 동시에 경외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라합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라합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을 도와 준 라합은 이제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보장하라고 요구합니다.

(수 2:12)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수 2:13)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수 2:14)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구원 약속과 함께 언약의 증표를 챙깁니다.

참 난 여자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이므로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언약의 증표를 요구하는 라합에게 정탐꾼들은 생명이라도 내놓고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구원해 주겠노라고 반드시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해 주겠노라고 약속합니다.

(수 2:15)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수 2:16)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수 2:17)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수 2:18)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수 2:19)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수 2:20)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여리고 성은 성벽 너비가 약 4.5m 나 되었기 때문에 성벽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었는데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붉은 줄에 달아 창문으로 내리면서 바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지 말고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었다가 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 갈 길을 가라고 일러 줍니다.

라합은 위급한 와중에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그들을 돕습니다.

이런 라합에게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달아내린 창문에 자신들을 달아내린 바로 그 붉은 줄을 매놓고 부모 형제 가족들이 다 집 안에 모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침략할 때 그 표를 보고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붉은 줄을 매어 놓은 집 밖에 있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가정의 사람이거나 가축의 첫 새끼들이 다 구원 받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안에 있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보내자 마자 당장 창문에 붉은 줄을 매드립니다.

(수 2:21)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정탐꾼이 들어 왔었다는 소식으로 여리고 성 전체가 심란한 가운데 갑자기 자신의 집에 붉은 줄을 매단다는 것은 자칫 사람들의 의심을 살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된 라합에게 이제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언제 닥칠지 모를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침략하는 그 날 자신과 가족들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그 집 안에 있어 반드시 구원되어야만 한다는 절박함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창세 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물든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구원 약속의 증표를 받은 우리들은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구원의 인자하고 진실한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안에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언제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침략해 올지 몰라 이스라엘 정탐꾼을 내려보내자마자 자신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우리도 언제 오실지 모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기다리며 한시도 십자가 안을 떠나서는 안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구원 약속의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만 사랑하고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히 11:31)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해서 개나 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던 이방 여인, 그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창녀라는 신분을 가졌던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영접하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으며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마 1: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벧을 낳고 오벧은 이새를 낳고

(마 1:6)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개종한 라합은 살몬과 결혼을 했고 아들 보아스를 낳았으며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과의 사이에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벧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팔자가 왜 이러느냐고 신세타령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직 구원의 증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팔자를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라합을 구약판 신데렐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라합과 같이 확실한 믿음 안에만 있다면 현대판 신데렐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현대판 신데렐라가 되어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의 종된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신부가 되어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은 아름다운 신부 단장을 하는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